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때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박지원 변호사,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본선 진출

전국 120여명 경쟁 뚫고 준결승

상산고·서울법대 출신 변호사

최종선출식창당기념행사서진행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에 박지원 변호사(전주시체육회장)가

수능 전국수석을 차지한 바 있는 박

변호사는 전국에서 무려 120여 명이 출 마한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예선전을 통과, 준결승 에 올랐다. 경기방식은 배심원제로 최

종 3인이 겨루는 결승전에 오를 멤버를

전주 상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그

는 전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첫 도전한 전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결과발표는 10~11일로 예정되어 있

으며 최종 선출식은 오는 19일 일산 킨

본선에 진출했다.

뽑는다.

2025년 9월 5일(금) 제 3165호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조찬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道-지역 국회의원, 예산 증액·현안 대응 모색

## 새만금·제2중앙경찰학교등점검 공공의대·가정법원설치법 전북특별법 등 입법 현안 검토 국정과제연계 후속 대응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사업 등 도정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 다.

전북자치도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 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국정과제 반영 후속 대응 ▲새만금 글로벌 첨담전략산업기지 구 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농촌진 흥청 식품자원개발부 전북 완전 이전 ▲공공의대·전북특별법·가정법원 등 주 요 현안 법안을 집중 검토했다.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정부안 반영 상 황을 토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과소・ 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또 전북의 핵심사업들이 국정과제에 연계된 성과를 실질적인 지역발전 동 력으로 전환하는 후속 대응방안을 논 의했다.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을 실증·육성할 수 있 는 국가 테스트베드 조성 전략도 검토

아울러 현 정부의 역점 시책인 균형 성장 달성과 영호남-수도권 간 상생발 전,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 차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필요성을 강조 했다. 농진청 일부 조직의 수도권 이전 논란을 계기로 농진청 식품자원개발부 전북 완전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 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재발 방지 대 책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입법 현안으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 대 설치법, 도민들의 재판 접근성 강화 를 위한 가정법원 설치법, 전북특별자 치도의 위상 강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를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에 머리 를 맞댔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이 원 팀으로 협력할 때 도민이 체감할 성과 를 만들 수 있다"며 "예산과 법안, 주요 정책 현안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전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 정치권과 도정이 힘을 모아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전북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안전점검의 날 맞아

완주 봉동초 일원서 교통안전 캠페인

## 도·어린이안전히어로즈등합동 26일까지 초교 주변 집중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완주 봉동초 등학교 일원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 성을 위한 민관 합동 '아이 먼저' 어린 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개학기 통학로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완주군, 완 주경찰서, 안전모니터봉사단, 녹색어머 니회 등 민간봉사단체와 봉동초등학교 안전히어로즈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 여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도는 등교 시간대 '아이먼저 안 전먼저', '횡단보도 일단멈춤' 이라는 슬 로건 아래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생 각하는 '아이 먼저' 캠페인을 진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

도는 연말까지 시기별 안전테마를 정 해 시군, 유관기관, 민간안전단체와 합 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시내버 스 랩핑 홍보 등을 실시해 생활 속 안 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에 박 지원 변호사(전주시체육회장. 사진 右)가

텍스에서 열리는 창당 기념행사에서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최고위원 선출 때마다 연거푸 고배를 마신적이 있어

이번 박지원 변호사의 도전을 예의주

/장정철 기자

본선에 진출했다.

있을 예정이다.

시하고 있다.

정광모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이 어 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 수칙의 중 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 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학교 민간안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 월 26일까지 5주 동안 시군, 교육청, 경 찰 등과 함께 도내 423개 초등학교(특 수학교 포함)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

/장정철 기자

## 전북, 2036하계올림픽 유치 본격화…용역 1차 중간보고회

#### 전북연구원 용역사참여 단계별점검 경제성검토·대국민인식조사완료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향한 발걸음 을 본격화한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관영 도지 시를 비롯해 도 관계자, 전북연구원, 용 역 수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이번 용역은 지난 5월부터 착수했으

전략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전북의 대내외 환 경 분석 ▲정부 승인을 위한 개최계획 서 작성 ▲IOC 미래유치위원회와의 지 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단계별 절차를

치 여건 분석과 대국민 인식 조사를 완 료했다. 경제성 검토도 9월 중 마무리 될 예정으로 도의회 승인과 정부 심사 에 대응하고, IOC와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마스터플랜 구체



#### 2025년 9월 5일 금요일

## 전북도 집중안전점검 시군 평가…전주・무주 '최우수'

## 6,600여명 참여 1,463개소 점검 5개분야종합심층평가 우수사례 확산·후속조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집중안전 점검 시군 평가'에서 전주시와 무주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군산시·익산시·장수 군·순창군·부안군이 우수 기관으로 각 다. 각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1,463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전문가 3,835명, 유관기관 관계자 455명, 공무원 2,322명 등 총 6,60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 로 추진됐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 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후속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 있는 점검을 추진했다. 고 있다.

평가는 ▲일반사항(실행계획 수립, 우수사례), ▲점검대상 선정(적설성, 준 수성), ▲점검방법(민관합동점검 추진 도, 전문장비 활용도), ▲점검결과 이력 관리 및 후속조치(사후관리 노력도, 이 력·후속조치 노력도), ▲안전문화 확산 (홍보 노력도, 주민점검신청제 추진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뤄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전주시는 민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 간시설물 점검 비율을 68%까지 높여 민간 분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 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배수로 정화활 동 등을 실시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앞

> 무주군은 수상레저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점검 전문성을 높였으며, 전문 장비 활용도를 82%까지 끌어올려 내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시군평가를 통 전 수준을 높이겠다"며 "도민들이 안심



전북도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시군 평가'에서 전주시와 무주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군 산·익산·장수·순창·부안이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적극 확산하고,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안전 후속조치를 강화해 도내 전 지역의 안 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 사회복지인 권익 강화 약속

사회복지의 날 맞아 성명 발표 임금·안식월제 등 지원 강조 "사회복지인 헌신에 깊은 감사"

명을 통해 "오는 7일은 사회복지사 지사 유급 안식월제 도입 등 현장의 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인들의 활동을 복돋기 위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도민 돌봄 최 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인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 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도

빈곤, 지역 소멸이 빨라지는 이때 사 역으로 도민은 더욱 따뜻한 일상을 회 안전망 강화는 우리 시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훌륭한 해법을 찾더 라도 현장에서 이를 담당해 나아가 는 사회복지인에 대한 정당한 보답 이 없다면 사회적 돌봄의 근간은 허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 치도당은 사회복지사 임금 기준 법 제화,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4일 성 기구 설치,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에 기초 해 사회복지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더욱 진전된 정책 도입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회에 서는 법과 예산으로 근거를 마련하 민, 지자체 등과 뜻을 모아가겠다" 또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노인 며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 영위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 특별자치도당은 그 노고를 가슴 깊 이 담아 도민 돌봄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의회 13일간 임시회 개회…추경안 심사 돌입

## 도지사·교육감 행정 질의 예정 접수의안47건17일심의·의결 예결위, 12~16일 추경안 심사

5일 제421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까지 13일 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8일과 9일 이틀 간 10 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을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과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47건을 해당 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5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도지사로 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 취한다. 또'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 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

> 올해 마지막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에 관한 질문은 8일 이정린(남원1) · 전 용태(진안) · 강태창(군산1) · 서난이(전 주9)·김성수(고창1) 의원이, 9일은 임 종명(남원2) · 김정기(부안) · 이병철(전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 교육 ·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전북특별자 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 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할 예정이 주7) · 황영석(김제2) · 김명지(전주10) 자유발언과 11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과 함께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동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 안 등의 의안 및 대정부 건의 · 결의안 을 심의 · 의결한 뒤 폐회한다.

> 문승우 도의장은 이에 대해 "도정 및 잘못된 정책추진과 미흡한 제도로 인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 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정청래, 최강욱 발언 논란에 윤리감찰 긴급 지시

## 조국혁신당 성비위 비호발언 파문 조국당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발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 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 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

정 대표가 최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은 조국 혁신당 의 당내 성비위와 직장내 괴롭힘 사건 에 반발한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탈 당기자 회견을 하면서 최 원장을 발언 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강 대변인은 최 원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에서 성비위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 언을 했다는 녹취 파일을 받았다고 밝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 문 화원에서 열린 혁신당 대전세종 정치 아카데미 강연 중에서 세종시당에서 발생한 세칭 '술집 면접' 성비위 사건을 거론하며 문제 제기자들을 "개돼지"라 고 비하했다.

유튜브 채널 '김두일tv'가 공개한 녹

취록에 따르면, 최 원장은 "조국을 감 옥에 넣어 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 받고 싸우는데 아이고"라며 성비위 사 건을 '사소한 문제'로 규정한 뒤, "그런 일은 혹시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당 사자의 얘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고 얼마만큼 정확히 들었는지 그게 우선 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 며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 누구 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그건 개돼지의 생각"라고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를 꼬집

최 교육연수원장은 조국 혁신당 혁 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 직을 상실했다.

정 대표는 8.15 특사로 사면복권된 최 원장이 조국혁신당에 가지 않고, 민 주당에 잔류하자, 교육연수원장으로

/서울=김영묵기자

## 최형열 도의원,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 불법사금융 범죄 3년새 159% 급증 법적 근거 마련 조례안 대표 발의

## 재난·범죄긴급대응시수당지급 현장활동보상미비 해소목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 주5)이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 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 시 자율방범대원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공고히 확립되었다. 그러 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나 실제 현장에서 재난·범죄 대응 활동



최형열 도의원

방범대원들은 위 험을 무릅쓰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보상 근거 가 미비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다"고밝혔다.

이어져 왔다.

요청에 따른 긴급 대응 활동 시 자율방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 범대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 금액 등 세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증가 나체사진협박등수법악랄해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최 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크게 증 가하고 있는데다, 나체사진을 유포하겠 다고 하는 등 그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

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 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 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 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 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 /장정철 기자 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 조했다.



한병도 의원, 정부 종합 대책 촉구

한병도 의원

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 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

한 의원은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 /서울=김영묵기자

## 전북자치도, 인공조명 빛공해 영향평가 착수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야간 생활환경 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에 착수한다.

도는 9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 빛공해 환 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등 34명이 참석 한 가운데 추진 계획과 과제를 논의했

이번 용역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대 표 지점 250곳을 선정해 가로등·보안 등·공원등 같은 공간조명, 전광판·간판 등 광고조명, 건축물・교량의 장식조명 등을 정밀 측정·분석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에 활용 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 비오는 발 안전운전 수척

감속 운전은 생명! 노면이 젖었응 때는 최고속도의 20% 감속 폭우나 안개로 가시거리100m 미만인 경우 최고속도의 50%감속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2배! 계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 급브레이크 급차선 변경 금지! 노면이 미끄러워 사고가 날 수있으니 주의

> 차량 점검 필수! 타이어와 와이퍼등 차량 미리 점검 해요!

전북타임스

## 1994 특별노선 전북현대 조기 우승에 힘 보탠다!

## 전북현대모터스FC 홈경기시 1994특별노선최대규모운영

전주시가 프로축구 K리그 선두를 달리 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FC의 조기 우승 을 염원하는 축구팬들을 위해 1994 특별 노선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시는 전북현대모터스FC의 조기 우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3일과 20 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홈 경기시 시내 주요 거점과 경기장을 오가 는 1994 특별노선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 라고 4일 밝혔다.

이는 리그 선두를 달리는 전북현대가 연이은 홈경기가 조기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적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 해 대중교통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특히 시는 무더위가 걷힌 9월 중 펼쳐 지는 이 두 경기에 많은 축구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8대~14대였던 친 환경 수소버스를 15대까지 늘리고, 혁 신·만성지구 방면 운행을 위한 전기마을 현대의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



전주시가 프로축구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FC의 조기 우승을 염원하는 <사진=전주시> 축구팬들을 위해 1994 특별노선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버스도 기존 1대에서 2대로 늘리기로 했 획이다.

시는 1994 특별노선을 오는 10월 K1리 그 정규라운드와 11월 파이널 라운드까 지 연장 운영하는 등 2025시즌 종료까지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북

이와 관련 올해 1994 특별노선은 지난 8월까지 총 11회의 홈경기시 누적 9720 명이 이용하며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 는 프로축구 팬들에 가장 편리하고 안전 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4 특별노선은 평화동종점을 출발해

한옥마을,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종합경 기장, 전북대학교를 거쳐 월드컵경기장 까지 운행되며, 경기 2시간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집중 운행돼 경기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1994 특별노선은 축구팬을 위한 전용노선으로 경기장 주변 주차난 해소 에 기여한 것뿐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 와 탄소중립의 상징으로도 자리매김하 고 있다. 실제로 1994 특별노선은 전북현 대모터스FC 홈경기뿐 아니라 지난 상반 기 이팝나무 축제와 전주국제그림책도 서전 등 주요 행사에도 투입됐으며, 오는 25일 개막하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 컵에서도 국내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특별노선이 운영될 예정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무더 운 여름이 지나고 야외 활동을 즐기기 좋 은 계절을 맞아, 축제·행사 현장마다 대 중교통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시민들 의 편리한 이동을 돕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도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페스타 2025'로 즐기는 가을축제 대향연

전주독서대전 시작으로 포문

가을철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의 다양한 축제를 만날 수 있는 통 합축제인 '전주페스타 2025'가 전 주독서대전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

전주시는 5일 개막하는 '2025 전 주독서대전'을 시작으로 오는 10 월 31일 개막하는 전주막걸리축제 에 이르기까지 9월과 10월 두달 간 전주 곳곳에서 '전주페스타 2025' 가 펼쳐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전주페스타 2024의 주무대였던 전주종합경기 장이 전주MICE복합단지로 탈바꿈 하기 위해 철거됨에 따라 지역 골 목상권이 골고루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전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올해 전주페스타에서는 △전주

독서대전(9월 5~7일, 전주한벽문 화관·완판본문화관) △전주국제 한지산업대전(10월 2~4일, 한국전 통문화전당) △전주예술난장(10월 17~19일, 팔복예술공장) △전주비 빔밥축제(10월 24~26일, 전주월드 컵경기장) △전주막걸리축제(10월 31일~11월 1일, 전주비전대학교 대운동장)가 차례대로 개최돼 전 주의 가을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 이다.

특히 대표행사인 전주비빔밥축 제 첫날 밤에는 전주페스타 축하 행사인 '함께가을'이 진행된다. 이 날 행사에서는 올림픽 유치 기원 을 담은 홀로그램쇼·멀티미디어쇼 와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축제장에서는 전주의 다 양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달콤 스토어와 축제 프레임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네컷사진, 3 개 이상 축제에서 스탬프를 받아 전주페스타 굿즈를 얻을 수 있는 스탬프투어 등 전주페스타만의 연 계 콘텐츠들이 진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전주페스타 축제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축제 개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페스타 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다양한 축제를 즐기며 전주의 맛과 멋, 흥 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올해도 많은 분들이 가을 철 전주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전 주페스타 축제를 함께 즐기며 즐 거운 추억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미래도시포럼 2025 개최…글로벌 미래도시 전략해법 공유

## 세계지방정부연합과 공동 개최 유네스코자문위원등전문가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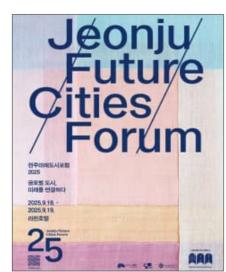
도시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 확인을 통해 글로벌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과 글로벌 전문가 등이 전주에 모 인다.

시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전주라 한호텔에서 '글로벌도시, 미래를 연결하 다'라는 주제로 '전주미래도시포럼 2025' 를 개최한다.

지난 2023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전주미래도시포럼 2025'는 지속가 능한 도시의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고, 글 로벌도시가 나아갈 미래를 함께 모색하 는 담론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지방정부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 는 이번 포럼의 세션은 △문화도시 △도 시브랜딩 △AI혁신 △청년미래랩(인구 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원이 위기) △시민미래랩(친환경교통/신설) 패널로 참여해 글로벌 르네상스 시대를 등총 5가지다.

먼저 포럼 첫날인 오는 18일에는 개막 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와 더불어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유 원과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이 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포럼의 도시브랜딩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포르 이어 최서연 전주시의원이 패널로 참여



포문을 연다.

이어진 '문화도시, 글로벌 르네상스' 세 션에서는 김현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 수를 좌장으로 피에르 모르코스 프랑스 문화원 문화참사관과 오영재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교수, 김지교 문화유산기술 연구소 대표, 김영준 나전아티스트, 기조 연설자인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유네스 맞이하는 문화도시와 예술가들의 역할

또한 첫날 마지막 세션인 '도시브랜딩 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 과 디자인, 도시의 재탄생'에서는 도시브 랜딩의 대가인 장동련 연세대학교 국제 각각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글로벌 연 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유현준 건축가와

투시의 이자벨 모레이바 다실바 홍보부 서 총괄책임자, 러셀 케네디 호주 디킨대 기 위한 구체적 사례와 실행 아이디어를 학교 국제 및 파트너십 담당부학장, 장재 나눈다. 희 전주시의원이 참여해 도시의 브랜딩 과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 하고 도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된다.

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키워 드인 'AI'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 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 은 이 세션에서는 피지컬 AI 국책사업 연 구총괄을 맡고 있는 장영재 카이스트 산 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이지은 심시 스글로벌 AI/Data 개발사업본부 본부장, 네덜란드 스마트팜 기업인 프리바 동남 아지부 마뉴엘 마다니 지부장이 연사로 나선다. 또,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 박찬희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도시가 AI 세계 도시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함께 논의한다.

나디아 찬드라데위 UCLG ASPAC(세계 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 탁드린다"고 말했다. 총장, 우탄키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 닉 부총장, 전소현 로컬경험디자이너, 전 북대학교 유학생인 율다셰프 아크말전,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된다.

해 인구위기시대 청년과 도시가 공존하

시는 이번 포럼의 청년미래랩 사전 등 록시 '청년과 도시의 공존방안'을 접수해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 고 어떻게 하면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특히 포럼 둘째 날인 19일에는 최근 국 들여다볼 예정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 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포럼은 '시민미래랩'이 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스티브 박 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이 세션에서는 박 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과 백 미영 전주시 버스정책과장이 각각 선진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와 전주시가 추진 중인 수소에너지 기반의 BRT(Bus Rapid Transit) 시스템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수미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올 해로 제3회를 맞는 전주미래도시포럼은 능한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며, 도시의 다 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글로벌 이후 '청년미래랩' 세션에서는 민경중 도시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버 며 "전주의 미래를 바꿀 이번 포럼에 많 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

> 한편 '전주미래도시포럼 2025'에 참여 를 원하는 시민들은 공식 누리집(www. jeonju.go.kr/wfcities)를 통해 신청하면

> > /김영태 기자

#### 전주시,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도와

힐링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전주시와 전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김남희)는 4일 CGV전주효자에 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이번 행사는 여름 방학 동안 이용 아동 돌봄에 애쓴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종사자 간 소 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 다. 이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 자들은 영화 관람을 통해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또, 힐링을 통 해 얻는 긍정 에너지가 이용 아동들 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 력하자고 함께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아 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도와온 지역아

동센터장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주 시장 및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장 수 여식도 진행됐다.

김남희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장은 "아동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 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면서 "연합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의 행복 한 성장 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 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쓰시는 종사자분들의 역 량 강화를 위한 이번 행사가 큰 도움 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어린이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충

## 삼천초등학교 부지 활용 학생 전용 통학로 설치 완료

전한 통학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삼천초등학교 부지 내 정문에서 후문까 지를 잇는 폭 1.5~3m, 길이 110m 규모의 학생 전용 통학로를 조성했다고 4일 밝 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혔다.

의 통학로로 이용되던 학교 인근 쌍용2 단지 부지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됨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 에 따라 학생 통학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시와 전주교육지원 시는 올해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청, 삼천초등학교 등 관계기관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먼저 시는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를 신속히 추진했다.

이 사업은 기존 삼천초등학교 학생들 인 대체 통학로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기 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가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조성하는 방안 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을 교육청에 건의했다.

>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며, 시는 공유부지 교육청 보조금 지원 결정 등의 행정절차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어린 학생 들이 새 학기부터 통학로를 안전하게 이

시는 새로 조성된 통학로의 경우 기존 그 결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통학로 통학로와는 달리 차량과 보행자 이동 공 간이 분리돼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들 무상사용 협약 체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도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정소민 기자

## 전주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통해 일자리 연결

#### 장년층구직난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해소하기 위한 '2025년 제3회 구인·구직 앞서 직업상담사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 등을 통해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일자리를 찾는 전주지역 청·장년층과 연결해 주는 일자리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구 직난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을 돕고, 인 체와 청·장년층 구직자 등이 참여했다. 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채용행사에는 △㈜한우물(볶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밥 제조업체) △㈜엄지식품(냉동만두 제 조업체) △(주)폰드그룹(제조 및 도소매) △㈜제니엘(도시락 제조업체) 등 4개 업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이번 행사에

률을 높이기 위해 주력했다.

및 근무 시간과 통근버스 노선 등 구인 조건에 맞춰 구직자 개개인별 맞춤 상담 을 진행해 면접 대상자가 해당 업체의 면 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 업체들은 이날 현장 채용 및 면접

시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보다 예산 대 특히 직업상담사들은 참여기업의 급여 비 효율성이 높은 소규모 '구인·구직 만 남의 날' 행사를 꾸준히 열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2회에 걸친 행사를 통해 청・ 장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 공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자전거 정비교실·도로연수 교실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친 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 산을 위한 '자전거 정비 및 도로연수 교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보다 안 전하고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주행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자전거 정비교실'은 오는 10 일과 10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대 우빌딩 7층 회의실(완산구 기린대로 213)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Δ브레이크 및 기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 조절 방법 △타이어 펑크 수리 △

정기 점검 요령 등으로, 시민들이 일 상에서 필요한 자가 정비 능력을 키 우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또한 '자전거 도로연수교실'은 오는 23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평 화의 전당 공영자전거 대여소(완산구 전주천자전거길 490)에서 출발해 자 전거도로를 따라 약 12km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시민이면 누 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교실은 선 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교육비 는 무료이다. '자전거 정비교실'은 오 는 5일까지 '도로연수 교실'은 오는 10일까지 전주시 교통정책과(대우빌 딩 5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정소민 기자

## 고창 장호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선정

## 특별사업비 10억원 확보 저온저장시설 건립 종패생산장 구축 등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 장호어촌계 가 해양수산부의 2025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 정, 총 10억원의 선진공동체 특별사업 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 전국 6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2개소만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고창 장호어촌계가 유일 부담 1억 원으로 구성된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체 규약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수산자

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제도로, 지속 고 있다.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과 어가 소득 증 대를 목표로 한다.

하게 포함됐다. 확보한 사업비는 국비 5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건립 △지역 억 원, 도비 1.2억 원, 군비 2.8억 원, 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패생산장 구축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동지게차 구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장호어촌계의 생산성과 공동체 수 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 산국장은 "이번 특별사업비 확보는 단 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지역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2천6백만 수도권 시민에 귀농귀촌 상담홍보

## 6일까지 상담홍보전 개최 도시민 실제 정착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 귀농귀촌 서울사무소에서 2,600만 수도권 도시민 을 대상으로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 전'을 개최한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업·농 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15년에 시작된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은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며, 그간 전북자치도 수도권 귀농 귀촌인 유치에 앞장서왔다.

이번 상담홍보전에서는 '내가 그린대 로, 고향의 품으로'라는 부제 아래 전북 자치도와 13개 시군, 산립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의 협업으로 지역별 귀농·귀 산촌 상담 및 정책 설명회, 토크 콘서트, 우수 귀농귀촌 정착사례 공유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상담관에서는 △'13개

시군별 상담 및 전문상담(귀농, 귀산, 농 촌일자리)'을 운영해 지역별 특색있는 지원정책 및 작물선정, 임업과 귀산촌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1:1 상담을 제 공한다.

또 행사관에서는 매일 △'테마별 오전 특강'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마인드 함 양, 귀산촌의 이해, 청년창업농 영농정 착지원사업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북의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귀 농·귀산촌 정책설명회'를 비롯해 △'스 마트팜 토크 콘서트', △'나의 세컨드 하 우스, 체류형 쉼터로 4도 3촌 생활하기 등 성공한 귀농귀촌인과 전문가들이 참 여해 현실적인 정보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 는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생활권 중심 으로 농촌지역 주거·사회서비스 등 종합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 귀농귀촌 서울사무소에 서 2,600만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을 개최한다.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전국 최고 수 준의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을 보유하 고 있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 게 최적의 정착지로 꼽힌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 업국장은 "이번 상담홍보전을 통해 수

도권 도시민들이 전북의 다양한 지원정 책을 알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 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개최

## 우수사례판매노하우공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 팅 분야 농업인 역량을 제고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4일 정보화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수시례 발표 및 농산물 판매 노하우를 공유하는 혁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 까지 3일간 열린 부문별 경진대회를 통 해 선정된 15명의 농업인 시상 및 정보화 김동욱 대표에게 전수했다.

또한 정보화 우수시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황송운 대표로부터 토마토 온 성보화 우수사례에서 죄우수상을 받은 실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수량 증대 및 농업인이 10월 23일 농촌진흥청이 주관

품질 개선 등을 공유하고, 라이브 커머스 하는 혁신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최아연 대표 의 주 작목인 '괴칸'을 실시간으로 판매하 유공 도지사 표창도 김지희 농촌지도사, 는 과정을 시연해 현장의 열기를 한층 끌 경영과장은 "이번 행사가 정보화 농업 어 올렸다.

로 출전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권택 자원 인의 화합의 장이자, 디지털 기술을 통 이번 도 대회에서 라이브 커머스, UCC, 하여 우리도 농산물의 특성을 홍보하고

/정소민 기자

## 전북도-경진원, 인도 수출 인증 지원 강화

## 인증 기준 법령 강화 전문 컨설팅 등 지원 확대

최근 인도 정부가 화장품·식품·산업·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인증 기준과 관련 법령을 강화함에 따라, 현 심역할을 하고 있다. 지 통관 및 시장 진입 과정에서 요구되 는 각종 인증 취득이 수출 성패를 좌우 례가 늘어나면서 도는 기업이 초기 단 사는 CDSCO 인증 취득 후 인도 대형 유 등 실무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는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CDSCO, FSSAI, BIS 등 인증 취 득 절차와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신속한 대응과 사전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봉)은 도내 기업을 위한 인도 인증 전문 지원 인력은 전문 컨설팅사와 협력해 상 출장 직원의 밀착 지원과 현지 거점센 원 직원이 기업과 바이어 사이를 직접 는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연결하고, 인증 절차와 서류 점검 등 현 지 실무를 지원하면서 성과 창출의 핵 기업들이 실제로 인도 시장 내 주요 유통

인증 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품목별 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BIS 인증의 경 우, 2025년 8월부터 전기·전자제품 등 신 이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규 품목에 대해 인증 의무화가 적용되면

컨설팅과 취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답·서류 점검·시험기관 안내·통관 시뮬 터 협력 체계가 결합된 성과로 평가된 있다. 무엇보다도 장기 출장 중인 경진 레이션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 없 다.

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확대 현지 바이어가 인증을 요구하는 사 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화장품 0 니라 현지 파트너 필요성, 인증 유효기간 계부터 인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 🦰 통채널 입점에 성공해 현지 판매망 확보 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P사도 CDSCO 인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곧 수출 성과와 법령 및 절차 해설 등 실무 중심의 맞춤 증 진행과 동시에 샘플 물량을 수출하며 본격 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국·영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을 확대하 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 서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하다. 이에 현지 려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이는 경진원

화장품 분야 CDSCO 인증 컨설팅 4개 이러한 지원 결과, 도내 화장품·식품 사와 BIS 인증 컨설팅 4개사 등총 8개사 를 지원하고 있으며, CDSCO 인증의 경우 취득 요건, 인증 비용 등 핵심 정보뿐 아

전북도 관계자는 "인도 인증 강화에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며, "도내 기업 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 또한, 인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정소민 기자

## 농진청,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 개최

10일 8개 도·60명 참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촌 여성의 농업기계에 대한 인식을 개 선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농 작업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5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를 개최

'어 her! 정밀하게, 센스 있게, 한 뼘 더 스마트 하게'란 주제로 치러지 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8개 도 에서 추천한 여성농업인 60명(20개 팀)이 참가해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 작물 생육에 꼭 필요한 농업기계 조 작 능력을 겨룬다.

총 2부로 나눠 두둑 성형, 기계 정 식, 코스 운전 3개 종목에 걸쳐 △보 행관리기를 활용한 두둑 성형 △반 자동 정식기를 이용한 배추 모종 심 기 등을 진행한다. 수상자 20명에 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고, 대상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업기계 10종과 농작업 편의·안 전 장비 19종을 전시하고, 안전 홍



보 활동(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모 의실험 장치(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트랙터 운전과 무인기(드론) 비행 체험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대 회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기계 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신감의 도구로 받아들여 현장에서는 안전 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길 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주어 바란다"라며 "앞으로 여성농업인 농 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실습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농 업기계 활용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김의겸 청장, 새만금 에너지 대전환 시동

세계상공회의소 총회 참석

만금정)은 9월 4일 선묵특별자치도 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청장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새만금 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과 새만금 RE100 계획"에 대 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외 이차 해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새만금 RE100 산단 준비 등의 내용을 발표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돼 사업지연 이슈를 해소한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을 서해안 에너지고 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반영해 새만금 있게 추진하고,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새만금 RE100 기 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2030년까 수립과 속도감 있는 이행 관리, 관계기 지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규 조력, 태양광, 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 라고 말했다.

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조력발전은 수질개선, 홍수예방,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정은 사업주진에 차실이 없도록 자단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환경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해 연말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이외에도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 으로 제1산단, 제2산단 등에 RE100 산 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업을 유치 이날 김의겸 청장은 직접 △새만금 해 새만금의 대전환을 실현하겠다는 내 용도 포함했다.

김의겸 청장은 이날 발표에 이어, '새 만금신재생에너지 산·학·연 정기포럼'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 에도 참석해 '새만금 RE100 산단' 구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재명 정 을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 수상태양광 2단계(0.9GW)는 조속한 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성공모 델로 만들고 싶다"라면서, "철저한 계획 관 협력을 주도해 새만금이 REal(진짜) 또한, 새만금지역(인근 포함)에서 관 RE100의 상징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모 /정소민 기자

## 전북중소벤처기업청-JTV 전주방송, 지역 청년 창업가 '집중 조명'

## 우라동네 청년CEO, 10일 첫방송지역내수진작기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청장 전세희)은 JTV 전주방송 를 담은 특별 프로그램 '우리동네 청년 CEO'를 오는 10일 오후 6시 50분부터 JTV 전주방송 '즐거운 생활백서' 코너에

서 방송한다고 밝혔다.

성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JTV 전주방송과 협업해 특별 기획 코너 '우리동네 청년CEO'를 방영되며, 매주 한 명의 청년 CEO가 출 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련했다.

과 함께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 진 프로그램 '즐거운 생활백서'에서 방 까지 청년사업가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 영되며, 단순히 지역 명소나 맛집을 소 개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모 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를 통해

년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 도전과 이가 판로 확대에 기여해 지역경제 활 품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해 창업 계기,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 이 코너는 JTV 전주방송의 정보매거 움, 극복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해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공감을 전달할 가들이 많이 등장해 지역상권이 발전하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청 청년 창업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나 '우리동네 청년CEO'는 지역의 대표 상 다.

CEO를 집중 조명하며, 이를 통해 청년 '우리동네 청년CEO' 코너는 총 9주간 창업가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중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세희 청장 은 "지역소멸 위기 시대에 이번 방송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와 같은 청년 사업 길 바란다"며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을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 /정소민 기자

## 전북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상생 협력 강화

주요 현안 발생 시 협의 건의

공기관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산업 육성 △ 지역인재 채용·양성 △주민지원 및 지 역공헌 등 6개 분야의 추진 현황을 점 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구매 실적을 공유하고 확대 필요성에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함께, 전북도는 향후 이전 공공기 관에서 조직 개편으로 타 지역 이전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 이전공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와 의 신뢰와 협력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 히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설상희 전북자치도 건설정책과장은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긴밀히 협 력해 전북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 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 특히 이전 기관들의 지역 물품 우선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정소민 기자

5

## 전북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인력 배치

## 6개 교육지원청에 전문직 배치·일반직 내년 배치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을 일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배치하고, 안정적 운용을 지 원한다.

전북교육청은 4일 '유보통합관리일 원화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유보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증원 인력관리 당 내부위원,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운용 방안을 협의했다.

2023년 발족해 그동안 지자체에서 교 육청으로 이관 대상 업무 분석 및 업 무 수행인력 규모 파악, 국고 대응투자 와 지자체 특색 사업 이관 여부 및 범 위 결정, 애로사항 해결 방안 마련 등 에 힘써왔다.

이번 협의회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 행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인사·조직담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 유보통합관리일원화추진단은 지난 력 증원 배치와 효율적인 운용 등에 대 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 산, 익산, 완주, 부안, 고창 등 6개 교육 지원청에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할 전 문직(장학사)을 배치했고, 일반직(행정 직)은 2026년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는 보육업무

이관을 담당할 인력 4명을 지자체에 파견한 상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유보통 합을 담당할 인력은 앞으로 유보통합 전북교육청은 올 9월 1일로 전주, 군 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영유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도 관심 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근영여고, 전국중고대회 우승컵 차지

서울 중앙여고에 3대2 승리

'배구 명가' 전주 근영여고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경북 영천에 서 열린 제36회 CBS배 전국중고배 구대회에서 근영여고 배구부가 우 승컵을 들어올렸다.

근영여고는 8강에서 만난 광주체 육고를 3대2로 승리한 뒤, 준결승에 서 서울 일신여상을 3대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강력한 라이벌이자 올해 각종 국내대회에서 우승을 차 지한 막강한 서울 중앙여고.

결승전 답게 양 팀은 풀세트까지 치르는 대접전 끝에 근영여고가 세 트스코어 3대2로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최우수선수 상은 정솔민(3년), 세터상 이주희(2 년), 공격상 이지후(2년), 우수공격 상 진수민(2년)이 차지했고 양철호 지도자가 지도자상을 받았다.

전주근영여고 최우영 감독은 "풀 세트까지 가는 접전에도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전국 체육대회에서도 전북 배구의 위상 을 드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대, 8일부터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 전체모집인원745%선발 글로컬시업모집단위광역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26학년 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8일부터 12 오 후 7시까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 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받는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 (4,429명) 중 74.5%인 3,301명을 선발한 다.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으 로 906명, 학생부교과전형으로 2,257명, 예체능 실기 135명 등이다. 의과대학은 전년도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인원 103 명보다 17명 감소한 86명을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80%) 와 면접 점수(20%)를 합산해 최종 합격 자를 결정한다. 단, 간호학과, 수의예과, 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일반학생과 지 역인재전형에 학생부 100%를 반영하 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한 다. 농어촌학생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 과성적 80%와 정성평가 20%를 반영해 선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 지 않는다. 예체능-실기 전형은 학생부 와 함께 실기고사 점수를 반영해 합격

2026학년도 입시에서 주요한 사항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따른 모집단위 광 역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이다. 계열중심의 모집단위 광역화는 지 난해 입시부터 실시한 것으로, 기존 공 과대학은 공학계열 1, 2로, 농업생명과 학대학은 농업생명과학계열로, 사회과 학대학은 사회과학계열로, 경상대학은 경상계열로 모집하는 등 기존 106개 모 집단위가 46개로 통합돼운영된다. 이 밖에도 첨단분야 모집단위로 이차전지 공학과와 첨단방위산업학과가 신설됐

또한, 2026학년도에는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해 감점기준에 따라 환산총점에서 감점 조

각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전 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는 1단계 합격자가 발표되고, 11월 6일 에는 예체능 실기고사가, 11월 20일에 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이 진행된다. 최 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 오후 2시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원단체 "교권보호법 개정하라"

## 전교조전북지부전북교충등 범시민대회진행

전북 6개 교원단체는 4일 오후 5시 30분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 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A초등학교 학부 모에 대한 처벌과 교권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며 전주 에코시티에서 범시민대 회를 진행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 학부 모는 지난 2022년 자녀가 이 학교로 전 학을 온 뒤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부모가 교원의 정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학부 권한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모의 민원 제기는 중단되지 않았다.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전북 6개 교원단체는 4일 오후 A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권보호법 개정을 요 구하며 범시민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최성민 기자>

교원단체는 "교육부는 부당한 민원 체를 무너뜨리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 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 가 됐다"며 "더 이상 반복된 비극을 만

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다"며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의 들지 않으려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과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이어 "한 명의 악성민원인이 학교 전 무고성 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우석대 한의학과, 건선 치료 연구 SCI급 저널 등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한의학과 학부생들이 주도한 건선 치료 연구가 SCI급 국제학술지 '식물요법연구'에 게 재됐다.

논문에는 우석대학교 이혜진·소유진 학생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건 선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는 질환임을 바탕으로 다중 경로에 작용 하는 천연물의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천연물이 건선 발병의 핵심 기전인 염증 신호 전달 경로 억제 등 여 러 경로에 동시에 작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양갑식 지도교수는 "해당 연구는 전통 한의학 이론과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건선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 으로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연구경험 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방송인 조나단, 남원 홍보…21일 유튜브 채널서 공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 사 이경윤)은 4일 방송인 조나단이 남원 에서의 관광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 을 체험하며 남원의 매력을 유쾌하게 소

이번 촬영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 업의 일환으로, 전북의 대표 미식과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추진됐다. 영상은 오는 21일 새롭 게 개설되는 유튜브 채널 '왐마전북'(가 제)을 통해 공개된다.

영상에서는 조나단이 남원을 찾아 추

어탕과 흑돼지로 만든 하몽, 오징어볶 음, 지역 유명 제과점 등 지역 대표 음식 개한다. 특히 전북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 하는 미식 공간들을 빠른 전개와 우수한 품질의 영상으로 담아내 시청자들의 기 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촬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배포해 지역 관광지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전북장애인체육회-태국장애인체육협회,우호 협력 증진

관영)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 회에 방문한 태국장애인체육협회 임원 단을 접견했다.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를 방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 문해 장애인체육 발전 방향 및 우호 협 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조형철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전북특별자치도 2일부터 7일까지 전북자치도 익산에 장애인체육회와 태국장애인체육협회간 서 열리고 있는 2025 익산 장애인펜싱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 세계선수권대회에 국제장애인스포츠연 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맹 집행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태국장애 할 것이다"며, "현재 다양한 국제적 장애 인체육협회 회장은 협회 임원단 8명과 인체육 교류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장정철 기자





## 군산 비응항 내 작업 바지선서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아침 8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비응항 내에 설치 된 어업인 작업용 바지선(어구와 수산물 손질을 위한 무동력선, 가로 4m 세로 8m, barge, 무등록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 나, 바지선이 모두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

화재 발생 후에 해경은 주변 선박 소유주 에게 연락해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이동 조치하는 한편 119 화재진압 소방정(艇)과 함께 해상에서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바지선에 실려 있던 LPG 가 스통과 바지선 하부 스티로폼에 불이 번졌 지만 화재발생 약 40분 후인 08시45분께 완전 진화됐다.

해경 관계자는 "작업용 바지선이 완전 불 에 타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주변 해역에 발생한 오염피 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성료 전국꿈나무 2천5백명 참가

정읍시에서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국민체육센 터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단과 관람 객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 최권열)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초등학 교 태권도 선수단 2,500여명이 참가해 그동 안 쌓아왔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이번 대회는 품새와 겨루기 두 종목으로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으며, 대회장은 어린 선수들의 자신 감 넘치는 기합 소리와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 찼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태권도 꿈나무들이 서로의 열 정을 나누고 우정을 쌓는 화합과 교류의 장 이 되길 바라며, 대회기간동안 정읍만의 멋 과 맛을 만끽하시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가 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안전보건지킴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시작

정읍시는 최근 건설, 제조업 등 민간사업 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

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 경험이 풍부 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으로 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안 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 △산업안전 관

련 법령 안내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 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 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을 지원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은 "산업재해 예방 의 핵심은 안전의식 향상에 있다"며 "현장 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를 내실 있게 운영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정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 시민화합대축전' 10월 내내 풍성

## 이라·익산통합30주년 마한문화대전·가요제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

익산시가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 년을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시 민화합대축전'으로 지정하고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념식과 공연으로 막 올려

우선 10월 3일 열리는 제30회 익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축전의 포문을 연 다. 익산시는 한(韓)문화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고자 지난해부터 시민의 날을 개천절인 10월 3일로 변경 해 기념하고 있다.

욱 특별한 기념식이 열린다. 30주년을 기념한 가요제와 세계유산등재 10주년 기념 KBS 전국투어 콘서트 등 대형 공 연이 이어진다. 기념식 당일 저녁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대축전의 시작을 확실히 알릴 예정이

이 밖에도 시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가 한 달 내내 펼쳐질 예정이 다. 주요 행사로 △전국돌문화산업전 △익산예술제 △평생학습축제&교육한 마당 △세계문화축제&글로벌 플리마 켓 △FCI국제도그쇼 △천만송이국화 축제 △시립예술단 공연 △익산북페스 티벌이 시민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할인 행사와 공공시설 감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도 더해진 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특 별 발행에 더해 익산몰과 로컬푸드 직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웨스턴라이프 호텔 등도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공공시설 감면도 이어진다. 10월 첫 째 주부터 2주간 시 직영 공영주차장 9 개소가 무료 개방되며, 서부권다목적체 올해는 마한문화대제전과 연계해 더 육관·국민생활관·문화체육센터 수영 장은 기존 휴관일에 무료로 이용할 수

> 공공승마장은 10월 한 달간 체험 상 품을 반값으로 할인하고, 보석박물관은 시민의 날 당일 무료 개장한다.

△시민참여 행사·이벤트 풍성



시민과 함께 자부심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30년 익산의 역 사, 30년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시민참 여 포럼에서는 도시 성장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발표와 미래 전략을 모색하 기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 모두가 함 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화합대축전을 알차게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도시 도약

## 원광대-농기원,창업지원 인재양성 등활성화 협약

익산시가 창업 지원부터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까지 산·학·연·관 협력 체 계를 가동하며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

익산시는 4일 원광대학교, 한국농업 기술진흥원과 원광대학교에서 '익산 그 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안호근 한국 농업기술진흥원장을 비롯해 원광대 학 생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유 망기업 발굴과 입주 지원 △연구개발 (R&D)·사업화 등 창업 전주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기관별로 익산시는 행정·재정적 지 원과 정책 연계를 담당하고, 한국농업 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산·학·연·관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내 기업 입주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린바 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방

정헌율 시장은 "이번 협약은 익산이 그린바이오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 기 관의 협력을 통해 창업과 연구개발, 인 재양성,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 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기술진흥원은 기업 관리와 사업화 지 원, 원광대학교는 연구개발과 창업 보

## 군산비어포트, 기업 행사 최적지 자리매김

## 문화체험 연계 워크숍 등 참가자 만족도 높아

군산 째보선창에 위치한 '군산수제맥 주 복합문화공간'인 군산비어포트가 기 업과 기관의 워크숍 및 단체 행사 장소 로 각광받고 있다

군산비어포트는 △총 1,249㎡ 규모로 약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단체 공간 △대형 스크린과 음향시설을 갖 춘 회의·세미나 시설 △군산 수제맥주 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단체 공식 행사를 원활하 게 진행 가능한 점에서 참가자들의 만 족도가 높다.

적 정취, 금강 하구의 이색적인 바다 전 로 꼽힌다. 망과 군산의 대표 로컬 콘텐츠인 '군산 맥주'가 함께 어우러져, 특색있는 행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 관광지가 있어 워크숍과 역사·문 화 체험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업 특히 군산항과 째보선창 일원의 역사 과 단체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

방문객들은 "탁 트인 바다 전망과 넓 은 공간이 주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 팀워크를 다지고 업무에 필요한 생 또한 인근에는 군산의 대표 근대역사 각들을 나누는 데 최적의 장소였다"고

평했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김상기 과장은 "군산비어포트에서 특별한 경험과 만 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복합문화 컨텐츠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재생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 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소비쿠폰 이벤트' 내달 당첨자 발표

## 30일까지 SNS 이벤트 응모 10월 10일 155명 추첨

소비쿠폰 사업이 정읍시에서도 활발히 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쿠폰 사용 확산과 참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이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 장에서 결제 후 인증샷을 촬영해 개인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 액은 187억원으로 사용률 83.5%에 달 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등)에 #정 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정부가 주도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읍소비쿠폰 해시태그와 함께 사용 후 것으로 나타났다. 기를 게시하면 된다. 이후 네이버폼에 진행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 게시물 링크와 참여 정보를 입력하면 트가 단순한 경품 제공을 넘어 시민들 응모가 완료된다.

첨해 치킨, 햄버거, 커피 등 기프티콘을 소비쿠폰 SNS 인증 이벤트'를 운영 중 경품으로 제공하며, 당첨자는 10월 10 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지급·사용 현황(9월 1일 기

준)을 보면 총 228억원 중 224억원이 지급돼 지급률 98.1%를 기록했다. 사용

이학수 시장은 "이번 SNS 인증 이벤 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시는 참여자 가운데 총 155명을 추 것"이라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 지역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 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공모

19일까지 접수

익산시는 '제17회 가람시조문학 신인상'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가람시조문학상은 한국 현대 시 조문학의 거목인 가람 이병기 선 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조문학 진흥과 유망한 신인 시인을 발굴하

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일부터 19일 까지다. 응모 자격은 2015년 9월 4 일 이후 등단한 경력 10년 미만의 시조시인으로, 최근 3년간 작품 또 는 작품집을 발표한 자에 한한다.

응모 대상은 지면에 발표된 시조 작품 중 다른 문학상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시조문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람시조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수상자가 결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

수상자는 오는 11월 1일 가람문 학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되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창 작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시조시 인에게 주어지는 '제45회 가람시조 문학상'도 함께 시상된다.

익산시는 매년 가람문학제를 비 롯해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정 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문학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가람시조문 학신인상 공모는 시조문학계의 미 래를 이끌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공무원 노사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비전 소통·조직 발전 모색

군산시가 4일 금강도서관 금강누리 다목적실에서 '소통으로 하나되는 우 리 조직'을 주제로 '공무원 노사가 함 께하는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조합원 약 80 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정 비 전과 조직 현안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조직의 발전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 미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간을 가졌다.

행사는 노사대표의 인사를 시작으로 노사토크, 직원과의 대화,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노사토크'에서는 조직 여론을 반영 한 주요 주제에 대해 노조위원장이 직 다. 접 질문하고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

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직원과의 대 화' 시간에는 사전 설문조사와 현장 건의 사항을 통해 조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노사 대표에게 전달됐

특히 인사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 안,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향후 군산시 중점사업 및 조직 구성 방향 등 조직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활발히 논의됐으며, 직 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 속에 의

강임준 군산시장은 "직원들의 솔직 한 이야기와 제안이 시정운영에 큰 힘 이 된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양성평등 사회 구현 '앞장'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개최

정읍시는 4일 연지아트홀에서 양성 평등주간을 맞아 기관·단체와 여성단 체 회원,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 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무더운 여름을 운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읍시 여성단체협회(회장 강정연)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별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없애고 일과 가정 이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 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으로 문화공연, 기념식, 특강 순으로 공자 표창이 수여됐고, 참여자들이 함 께하는 양성평등 실천 퍼포먼스로 의 있다. 미를 더했다.

이어 2부에서는 유인경 작가의 명사 특강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공감과 실전 의지를 심어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양성평등 이겨낼 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 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양성평등 구현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모두가 앞장서 온 여성지도자들의 노고에 감 사드린다"며 "양성이 평등한 성숙한 도시,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 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행사는 신바람 고고장구 공연을 시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는 사회를 구현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유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읍시는 이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독려

99.1% 신청·12일 마감

군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독려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소비쿠 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폰 지급 대상자 25만 5,081명 중 25만 청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509억 8,099 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 원에 달한다.

지로, 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에 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고 전했다.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 하거나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또 까지 2차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는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 편한 시민을 위해 장애인시설, 요양병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원,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신청과 발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찾아가는 신

소비쿠폰은 일반 시민에게 1인당 18 2,864명이 신청을 완료해 99.1%의 신 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3 만 원까지 지급되며, 군산시 관내 가맹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1차 신청 1차 지급 신청 기한은 이달 12일까 마감 전에 모든 시민이 꼭 신청해 주 시기 바란다"라며, "다가오는 2차 지급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

한편 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타임스

## 민생 경기회복 시민 생활안전 중점 2회 대비 425억원 1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주요 사업과 2회 추경 의결 이 후 확정 및 변경된 국·도비 사업에 신 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5억원(3.45%) 증가한 1조 2,739억원 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7억원(3.97%) 이 증가한 1조 1,709억원 규모로 편성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민생 경기회복 과 시민 생활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 했으며,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 사 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59억 △ AI 살처분 등 비용 지원 62억 △지방투 자기업 지원 49억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11억억 등이 포

또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오봉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19억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1-8) 개설공사 10억 등 생활밀착 형 안전 사업도 꼼꼼히 반영했다.

이외에도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7.7억 △친환경 산악관광지 시범 설계 용역 6억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 년친화 리뉴얼사업 5.4억 등 시민 체감 생활환경 조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반영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에 맞춰 민생 회복과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 았으며, 동시에 신성장동력 확보 및 안 전망 강화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고 루 신경 써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 정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블랙라즈베리 산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고창군, 블랙라즈베리추출물 산업 활성화

식품산업硏-식품진흥원, 협약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복분자 로 알려진 블랙라즈베리추출물의 공동 활용 및 기능성식품 산업 발 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과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등이 다년간 협력해 개발한 기능성 원 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

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았다.

이번 협약은 블랙라즈베리추출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한국 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활 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유지• 관리 및 신제품 개발을 공동 추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생기 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블랙라즈베리추출물이 다양 블랙라즈베리추출물은 고창군 한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까지 이 어져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디지털 시민증 발급자 1만 명 돌파

## 캠핑장 할인 등 혜택 효과 인구정책 성과 가시화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생활인구 확 대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구축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디지 털 시민증이 지난 7월 본격 시행 이후 불과 두 달 만인 8월 말 기준으로 발 급자 1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

이번 조기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꼽힌다.

김제시는 만경강 수변과 김제평야 를 배경으로 조성된 우수한 '청하파크 골프장'을 디지털 시민증 소지자에게 무료 개방하고, 인기 캠핑 명소인 '대 율캠핑장'에 대해서도 25% 할인 혜택 을 제공하면서 전국적인 입소문을 탔

디지털 시민증 확산은 지역 관광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 어넣고 있으며, 외부인의 지속적 방문 으로 생활인구 확충과 전입 유입 효과



김제시가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구축한 디지털 시민증이 8월 말 기 <사진=김제시> 준으로 발급자 1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기대된다.

특히, 시는 디지털 시민증을 통한 생 활인구 확대뿐 아니라 정주인구 측면 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9개 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총 936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디지털 시민증 제도가 시행 두 달 만에 큰 호응을 얻

고, 정주인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김제시 인구정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광·레저·소비는 물론 정주 지원까지 아우르는 다각적 정책으로 김제시와 연결된 생활인구. 정주인구 기반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위생·친절 서비스 수준 향상

층 다목적 강당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일반음식 점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특 별자치도교육원 수관으로 진행된 이 번 교육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식중 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식품위생법 정 책 방향,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해 부안군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및 환경 기반을 조성하며 내·외국인 방문객에 부안군은 지난 3일 부안예술회관 1 게 이용 편의를 제공해 위생 및 친절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안군을 방문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키 기 위해 실시됐다.

> 권익현 부안군수는 "식중독 예방 및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영업주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 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부안군 내 음 식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 동진감자, 온라인서 3억 2천만원 매출 달성

## 지난해 대비 70% 증가 역대 최대 매출 기록

부안군 대표 로컬푸드인 동진감자가 온라인 시장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 두며 전국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

부안군에 따르면 동진감자는 지난 1 월부터 8월 말까지 자사 쇼핑몰, 우체 국쇼핑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 매출을 올렸다.

출은 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기존 주력 품종인 수미에 이어 다. 새롭게 선보인 신품종 금선이 소비자 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선 감자는 수확량이 많고 저장성이 높아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대안으로 떠오 르고 있다.

소비자 반응도 뜨겁다.

온라인 구매자들은 "갯벌 간척지에 서 길러진 덕분에 맛이 짭짤하고 포슬 약 2만 박스, 3억 2000만원의 역대 최 포슬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지 는 등 동진감자는 '맛과 신뢰를 갖춘 로 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판매량은 84%, 매 컬푸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판로 확대도 실적을 견인했

기존 쇼핑몰의 다양한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첫 TV홈쇼핑 방 송에서만 약 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 하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농가와 행 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로 동진감자 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 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공동 마케팅 과 지원책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이·통장 협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4일, 전북특 별자치도 고창군 일원에서 시 이·통 장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이 ·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 다고 밝혔다.

정서비스 제공자로서 시민과 행정을 잇고 있는 이·통장의 노고를 격려하 고,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고 고말했다. 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고창 선운사, 고인돌 박물관, 석정온천을 견학하며 문화관 광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리더십 향상 을 위한 협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통장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 발전과 마 을 자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이·통 이번 워크숍은 주민의 대표이자 행 장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 적인 협조로 시민과 행정 간 가교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 농기계임대사업소, 수확철 토요일 근무

## 적기 영농 지원…11월까지 오전9시~오후6시운영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을 줄이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고 4일 밝 혔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다. 운영장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 소(고창읍), 서부권(해리면) 등 4개소로, 전담인력 19명이 투입돼 농기계임대와 배송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확철에는 농기계 수요가 급증 하는 만큼 사전예약제를 활용하면 원활 한 이용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인터넷, 전화 또는 방



문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한 농기계는 사용 전날 오후 4시부터 출고받아 바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바쁜 수확철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에 불편

함이 없도록 사전 정비점검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 변산면 완성식당, 착한가게 120호점 가입

부안군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최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 한 착한가게 캠페인에 '완성식당'이 제120호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 캠페인은 전북사회복지공 동모금회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변 산면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가 120호점을 달성하는 뜻깊은 성과

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중요 한 이정표가 됐다.

완성식당 대표는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일에 동참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 민들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는 "앞으로도 지역 내 더 많은 가게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특히 이번 가입은 변산면 착한가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문화의전당, 기획공연 '바람, 다녀가셔요' 11일 막올려

고창문화의전당이 손숙·손병호 주연의 연극 '바람, 다녀가셔요' 공연을 오는 11일 저녁 7시30분에 무대에 올린다.

연극 '바람, 다녀가셔요'는 강화도의 시 골 장터를 배경으로 정과 한의 정서를 품 고 살아온 순자, 그의 평생에 각인된 김씨, 그리고 아내에게 평생 따뜻한 말 한마다 도 건넨 적 없는 남편 박씨, 세 인물의 이 야기를 통해 노부부 각자의 가슴에 묻어 둔 진심과 아련한 사랑을 그려낸 작품이

죽음을 문턱에 두고도 하루하루를 미련 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 때문 에 미안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낸다.

이번 공연에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손 숙, 손병호가 주연을 맡았다.

무대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승 화시키고 관객들로 해금 진한 감동과 깊 은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 정이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 공연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극단 수와 고창문화의전당이 주관한다.

공연료는 10,000원이며 고창군민 특별 할인으로 3,000원 (청소년 1,500원)이다.

티켓예매는 9월 4일(목) 9시부터이며 인터넷 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http://ticket.gcac.kr) 현장예매는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현장예매 주말 제외)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 의전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붉은노을축제' 군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접수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 문)는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2025 부 안붉은노을축제 군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며 오 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안군청 4층 관광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는

붉은노을축제 기간인 오는 10월 24일부 터 26일까지 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이 가 능한 개인, 농호회, 사회단체 능 부안군민이 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종문 위원장은 "2025 부안붉은노을축 제를 다채롭게 만들어줄 체험 프로그램 운 영자 모집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여성회관,8~12일까지 라인댄스등35개과목수강생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여성회관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여성의 건전한 여가 활 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경 제력 향상 및 자아실현으로 여성의 행복을 추구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 제4분기 여성회관 수 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4개 과정 35개 과목이다.

취미·교양 분야에 라인댄스 등 16개 과 목, 건강 분야에 요가 등 6개 과목, 인문・교 양 분야에 기초영어 등 5개 과목, 야간 프로 그램으로 난타 등 8개 과목이다.

김제시에 주소를 둔 여성은 누구나 신청 가능(남성생활요리-남성)하다.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수강료는 3개월에 15,000원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 등은 수강료가 면제된다.

이번에 모집된 수강생은 2025년 10월 1 일부터 3개월간 교육이 진행된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여성 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여성회관으로 문의하면 된 다.

/김제=온봉기 기자

## 완주군, 주한외교사절단에 관광 매력 홍보

#### 라오스·필리핀 등 8개국 초청 로컬푸드·웰니스 팸투어 진행

한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완주의 다채로 운 관광 매력을 선보였다.

지난 3일 완주군은 지방자치인재개 발원(이서면)에서 주관하는 'LOGODI 글로벌 포럼 2025'와 연계해 8개국 11 명의 주한외교사절을 대상으로 맞춤형 팸투어를 진행했다.

기관장과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해 인 적 자원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포럼에 참석한 외교사절단도 완주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 의 메뉴를 신선한 채소 중심으로 구성

외교사절단은 '우수 웰니스 관광지' 완주군이 라오스, 필리핀 등 8개국 주 로 선정된 오성한옥마을의 아원고택을 방문해 고즈넉한 한옥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 에서 만경강을 품은 완주 경관을 조망 하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문화관광해 설사의 해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는 10개국 해외교육훈련 컬푸드로 장식했다. 군은 새참수레에 서 로컬푸드로 만든 한식 뷔페 만찬을 제공하며 외교사절단을 환대했다.

새참수레는 수육을 제외한 대부분

해 비건식을 선호하는 외교사절단에게 맞춤형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만찬에 직접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 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양성을 논하 이어 우석대학교 W-SKY23 전망대 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신 각국 외 교사절단을 완주군에 모시게 되어 매 우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완주 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건강한 로컬푸 투어의 대미는 완주군이 자랑하는 로 드 먹거리, 그리고 따뜻한 정을 느끼셨 기를 바라고, 앞으로 완주군과 각국이 다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힐링 명소 '쉴랜드' 휴식·치유 메카 인기

#### 워케이션센터 일·쉼 동시에 '각광' 휴-메디푸드교육올해 1600명 참여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쉴랜드'가 휴양과 치유, 교육이 결합된 복합 힐링 공간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쉴랜드는 숙박이 가능한 본관과 방갈 로를 비롯해 식문화 실습이 가능한 쉴 스튜디오, 명상관, 쉴향기정원, 찜질방 과 교육장을 갖춘 건강휴양 체험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준공한 워케이션 센 터는 공유오피스와 팀오피스를 갖추고 있어 '일과 쉼을 동시에 누리는 힐링형 워케이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방갈로 이용객이 2,430명, 치유연수 교 육생이 2,471명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 어내고 있다. 한 '힐링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휴-메디푸드 힐링 교육 프로그램은 올 해만 1,600명이 넘는 교육생이 참여했 으며, 만족도가 98%를 기록하는 등 전 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 '대한민국 우 다. 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쉴랜드'가 휴양과 치유, 교육이 결합된 복합 힐링 공간으로 전 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쉴랜드 프로그램은 편백숲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 성과는 방문객 명상, 아로마 테라피, 치유음식 체험 등 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힐링 경험을 선사하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

또한, 쉴랜드를 거점으로 운영하는 우수성은 공식적으로도 인정받았다. 2021년 전라북도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데 이어, 202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수 웰니스 관광지'에 이름을 올리며 전

북을 대표하는 휴양·치유 명소로 확고 히 자리매김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 발효 식문화라는 독 특한 자산이 쉴랜드만의 차별화된 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쉴랜드의 링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앞 으로도 혁신적인 치유·웰니스 콘텐츠 를 통해 쉴랜드를 대한민국 최고의 힐 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돌입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신규초청기준기족2촌이내축소

남원시가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계절근 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 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국내 농촌인력 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을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남원시에 주소 또는 농지 를 소유하고 5개월 이상의 상시고용인 력이 필요한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 면 된다.

조 입국 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남원시는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30일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가다. 수요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또는 내년부터는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 근로자(4촌이내 재입국 가능)를 제외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몽골, 라오스, 필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존 이내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고민하는 농가는 법무부에서 서류 위 방식에서 2촌 이내의 가족으로 축소되

남원시는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하고 신규 인력을 도입할 경우 현행 4 리핀의 지방정부와 MOU체결과 결혼 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등을 통해 2025 년 기준 928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 목 표로 운영중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자체 보수로 4천만원 예산 절감

#### 고산휴양림, 공설공원묘지 등 주요시설 공단 직원 투입 보수

산자연휴양림과 완주군공설묘지 주요 시설을 자체 점검·보수하며 약 4,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공단 직 용 절감과 시설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월까지 객실, 숲속의 집, 산림바이오매 정비 등이다.

스 홍보관, 평상·정자, 가로등, 놀이터, 인공폭포, 화장실, 취사장, 도로, 집수 경우 외부 위탁 시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정, 배수로, LED외부등 등 총 31개 분 있었으나, 공단 직원들이 직접 투입돼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올 상반기 고 야에 대해 자체 보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외부 용역을 활용할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공단 인력과 자재 를 활용해 크게 줄였다.

원들이 직접 시설 관리에 나서면서 비  $\Delta$ 평상·정자 청소·수리  $\Delta$ 산림바이오 하고 책임감 있는 시설 관리와 안전 관 매스 홍보관 배관관리  $\triangle$ 수조 청소  $\triangle$  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 4일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월부터 7 도로 보수 등으로, 특히 배수로·수조 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장비가 필요한 작업의 전액을 절감했다.

또한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보수에도 공단 직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자체 수리·보수는 주요 절감 사례로는 △배수로 정비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을 넘어, 신속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는 4일 경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산동면 문화플랫폼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 남원 산동면 문화플랫폼, 벤치마킹 모델 '주목'

#### 경북 농촌개발 관계자 방문 문화복지 교육 운영 복합공간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및 농촌 공간광역지원기관 관계자 30여명 이 산동면 문화플랫폼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 다.

이번 방문은 '산동이랑 문화랑: 과거-현재-미래로 보는 문화플랫 폼 이야기'라는 주제로 산동면 기 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산동면 문화플랫폼을 직접 방문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 료지구의 활성화 사례 및 운영 프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 환 로그램, 콘텐츠 등을 벤치마킹하 기 위해 마련됐다.

산동면 문화플랫폼은 지역 주민 들의 문화·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서, 농촌 정주 여건 남원시는 4일 경북 지역 내 일반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 히, 타 시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문할 정 도로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 으며,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 민 참여 및 소통 증대와 복지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활 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동면 문화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가 널리 전파되어, 전국 농촌 지역의 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옥천장학회, 학생 85명에 장학금 지원

#### 초·중·고 3개 분야 나눠 지급 예·체능 특기 다양한 종목 포함

순창군 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군수)가 관내 중고등학생 85명에게 총 5,47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6월 신청을 받 아 총 88건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 쳐 최종 85건(단체 1건, 개인 84건)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 재학생 으로, 일반 장학금(고등학생 학업우수 이 수혜를 받았다. 자)과 예·체능 특기생, 예·체능 학원

비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급됐 다.

분야별 지급 내역을 보면 △일반 장 학금 45명(2,250만원) △예·체능 특기 장학금 단체 1건(100만원)과 개인 12 명(600만원) △예·체능 학원비 지원 27명(2,526만원) 등이다.

특히, 예·체능 특기 장학금에는 역 도, 소프트테니스, 생활체조 등 다양 한 종목의 학생들이 포함됐으며, 학원 비 지원은 미용·메이크업 등 예능 분 야 16명과 합기도 등 체육 분야 11명

/순창=박지헌 기자

## 남원 보절면, 6일 백중 맞아 남원삼동굿놀이 개최

#### 지네밟기·합굿 민속놀이 재현 대통령상 수상 대표 민속축제

오는 6일 칠월 백중(百中)을 맞이해 보절면 괴양리 일원에서 '제41회 남 원삼동(三童)굿놀이 향토축제'가 개 최된다.

이번 행사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 등을 재현하고, 주민화합행사와 함께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최 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남원시 의회 의장 및 각 기관 단체장들과 재외 향 우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

삼동굿놀이는 보절면 괴양리 개신 마을의 뒷산이 닭의 형상이고 음촌마 을 앞산이 지네형상으로 마치 지네가 닭을 공격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지 네밟기를 행함으로 태어나는 동자들 이 입신출세하여 부귀영화를 얻는다 남원삼동굿놀이보존회가 주관하는 는 풍수설화에 근거한 민속놀이이다.

출산, 성장, 입신출세까지의 상황 배, 우물굿, 삼동서기, 지네밟기, 합굿 이 묘사되는 것이 특징인 남원삼동굿 놀이는 1982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 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난 2001년에는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 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의회 탄소중립특위, 분산에너지 1차 포럼

####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 소개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 논의

별위원회(위원장 심부건)는 지난 3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분산에너지 1 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심부건 위원장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김재천 부의 장, 김규성・이주갑・이순덕・서남용・ 이경애·유이수 의원, 용역기관 전문 가, 지역사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 석해 분산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지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포럼은 '분산에너지의 기본소득적 밝혔다.

특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 다. 특히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과 이를 실현할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포럼에서는 용역기관이 △분산에

너지 도입 국내외 사례 △지역 차원 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 △에너지 복 지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영농 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농업과 재생에 너지의 상생 모델을 공유했다.

심부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포럼은 분산에너지의 가능성을 군민과 함께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농업기<u>술</u>센터 한우 농가 대상 질병 관리 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일 오후 2 시부터 6시까지 농업인 상생플랫폼 1층 교 육장에서 한우 사육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우 비육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질병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하반기 품목별 상설 교육 과정의 하나로, 한우 비육단계에서 발 생하기 쉬운 주요 질병을 예방하고 농가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원 시 한우 사육 농업인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 여할 수 있고,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신 청도 가능하다.

교육은 가축 질병 관리 전문 수의사가 강 사로 나서, 비육단계 주요 질병의 진단 및 예방 요령, 위생·환경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김연주 소장은 "한 우 비육 과정은 질병 관리가 곧 경영 안정 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교 육이 농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우 농가의 많은 참여를 부 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피지컬AI 미래 선도 '자율주행 로봇 여행' 체험 성황

완주군이 피지컬 AI 분야의 선도적 역할 을 강화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일, 군은 완주군청소년수련관에서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 여행'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 100여 명이 함께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피 지컬 AI와 자율주행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블록 코딩 실습을 통해 자율 주행 로봇의 원리를 배우고, 크레용과 스크 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로봇을 조종 하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했다.

특히, 장애물 회피, 주차 등 실생활 속 상 황을 구현한 미션을 통해 피지컬 AI의 개 념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지난 7월 피지컬 AI 기반 모빌리티 실증 선도산업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 분야 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가족 로봇 여행' 프로그램 역시 이러 한 완주군의 노력과 미래 비전을 담아낸 성 과다.

군은 앞으로도 피지컬 AI를 비롯한 다양 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가을철 급증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강화

순창군은 가을철에 급증하는 진드기 매 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찾아가는 진드기 물림 예방 교육'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히 감염병 발생률이 높았 던 마을의 회관을 직접 방문해, 주민을 대 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 하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법 등을 시연하는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대표적으로 쯔 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이 있다. 이는 각각 쪼쪼가무시균과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릴 경 우 감염되며, 2주 이내에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군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증상 이 감기와 비슷해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증으로 발전할 위 험이 크다"면서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기 관을 찾아 야외활동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 무주군, 무주산골영화관서 2025 작은영화관 기획전 개최

무주군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2025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 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 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무주산골 영화관과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공동 주관해 10편의 영화를 2차례씩 20회 상영한다.

무주산골영화관은 〈겨울왕국의 무민〉과 〈물꽃의 전설〉, 〈죽여주는 여자〉 등 작품 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독립예술영화를 비 롯해 〈시간을 달리는 소녀〉, 〈슈퍼 키드 헤 일리〉, 〈늑대아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

〈심야식당 2〉 등 3편은 청각 장애인을 위 해 자막 해설을 추가한 무장벽 영화로 준비 했다.

무주군 내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체험형 프로그램은 영화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 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산골영화관 '2025 작은영화관 기 획전'의 모든 상영작은 사전 예약 없이 선 착순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상영 일 정과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는 무주 산골영화관 공식 누리집(https://muju. moonhwain.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당도 15브릭스 이상 애플망고 수확 성공

진안군은 최근 아열대 작물 전시포에서 당도 15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애플망고를 수확했다.

아열대 작물 전시포는 애플망고를 비롯 해 만감류, 파파야 등 다양한 아열대 작물 을 재배하며, 작물의 생육 현황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애플망고 수확은 겨울철 온실 난방 온도를 6℃ 이상으로 유지하며 재배한 결 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 작물 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현재 진안군에서는 2개 농가가 시범사업 을 통해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시 포 운영 성과 및 재배 기술은 이들 농가뿐 아니라 앞으로 관심 있는 농가 지도에 활 용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50세 이상 장수군민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 지원

장수군은 기존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에 이어 면역 효과가 더욱 우수한 대상포진 사 백신 예방접종 사업을 오는 8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1975년생) 이상 군민이며, 2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을 받게 된다. 접종은 보건의료 원 2층 예방접종실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접종 비용은 △일반 군민은 1차 175,000 원, 2차 87,500원, △취약계층(기초생활수 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은 1 차 175,000원, 2차 무료, △기존 생백신 지 원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백신 구입가로 접종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사백신은 항체 생성률 이 약 97%에 이르고, 효과가 10년 이상 유 지되는 것으로 확인돼 고령층의 건강 보호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포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 위 험이 커지며, 발병 시 극심한 신경통과 합 병증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 래하는 질환인 만큼, 예방을 위한 사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새 단장한 진안역사박물관 재개관

## 20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 국보순회전 개최 보물 백제문양전 선보여

진안군(군수 전춘성) 진안역사박물관 이 2006년 개관 후 첫 전면 새 단장을

마치고 4일 새롭게 문을 연다. 재개관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이 주최하고, 진안역사박물관 과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울림)이 공 동 주관하는 2025 국보순회전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 〈백제명품, 백

제문양전〉 전시도 막을 올린다. 이에 진안군은 4일 오후 진안역사박 물관 야외마당에서 진안역사박물관 재 개관과 국보순회전 개막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 과 축사, 전시 관람 등이 진행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하는 문화 축 제의 장이 됐다.

개관 20여년 만에 새 단장을 완료한 진안역사박물관은 지금까지 진안의 다 양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자료 수집



진안군은 4일 오후 진안역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진안역사박물관 재개관과 국보순회 전 개막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진안군>

과 전시, 교육 활동을 이어왔으며 현재 3,000여점의 진안의 문화유산을 소장 하고 있다.

이번 새 단장에는 총 19억원(도비 7.6 억원, 군비 11.4억원)이 투입돼 부족했 던 유물 수장 공간 확충과 노후 전시・ 편의시설 개선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존·활용을 강화하고 쾌적한 관람환

경 마련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 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2025 국보순회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백제명품, 백제문 양전〉을 주제로, 백제 왕도인 부여 외 리유적에서 출토된 국가지정 문화유산 인 백제문양전이 공개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2025 취업박람회 개최

## 구인·구직 만남의 장 11일 임실읍사무소 광장

임실군이 오는 11일 임실읍사무소 가 족N북카페 및 광장에서 '2025년 임실 군로컬JOB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행사에 많 은 구직자와 지역 주민들이 몰리며 열 어, ㈜친한F&B, 나래식품㈜, ㈜사조오 띤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행사 는 더욱 확대·강화된 프로그램과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일(JOB)로 만난 사이, 일(JOB) 났네'란 부제로 관내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안정적 취업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인 기업 8개 사가 참여하여 50명 이상 신규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이 즉석 면접과 채용 상담 을 진행하는 채용관에서는 ㈜뉴트라코 양,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섬진 강다슬기마을㈜, (유)왕성식품, ㈜진성 기업 등 임실군을 대표하는 지역기업 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현장에서 총 5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며, 특히 냉동만두 생산 업체인 나래식품㈜에서는 10명 이상, 그 외 기업별로 현장 면접을 통해 3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감을 높 이고 면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업 메이크업 △지문 스트레스 검 사 △퍼스널 컬러 진단 △캐리커처 △ 취업 타로 등 컨설팅관 11개 부스도 운 영되며, 참가자에게는 경품 혜택도 주 어진다.

/임실=한병열 기자

## 최훈식 군수, '장수트레일레이스' 코스 현장점검

#### 남덕유산 '토옥동~월성재' 신규탐방로포함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일 '제6회 장수 트레일레이스'에서 첫 선을 보이 는 100마일(173km) 메인 코스에 포함 되는 남덕유산 '토옥동~월성재' 신규 탐방로 구간을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

이번 점검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6회 대회를 앞두고 국 내 최초이자 최장의 코스로 주목받는 100마일 구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 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림과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100마일 코스 조성 및 운영 준비에 대한 보고를 며 노면 상태, 응급대응 체계 등 선수들 히 확인했다.

최 군수는 "트레일레이스 대회 참가



현장에서 최 군수는 관광산업과, 산 있도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받은 후 신규 탐방로 구간을 직접 걸으 다. 장수군은 대회 전까지 지속적인 코 준 2,300여 명이며 이 중 100마일 코 스 정비와 안전 장비 보강을 이어가며 의 안전 확보와 운영 준비 상황을 꼼꼼 각 구간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다. 참가자들은 20km, 38K-J, 38K-P,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락앤런(대표 김영록)이 자들이 장수의 자연을 온전히 즐길 수 주관하며, 장수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관광지와 산길, 마을을 잇는 비포장 코 스를 달리는 트레일런 형식으로 진행 이번 점검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된다. 올해 대회 참가 신청자는 8월 기 스에는 130여 명이 도전장을 내밀었 100km, 100마일 코스 중 하나를 선택 해 달린다.

/장수=최진수 기자

##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안전이 최우선!

## 축제현장민관합동안전점검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이 4일 무주예체문화관 등 축제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전북특 별자치도, 경찰서와 소방서 관계자들과 안전 전문가 등 25명이 투입돼 행사장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가스, 교통·치안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공간

조치 상황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전선 노출 여부 상태를 점검했다.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점검단은 이 자 리에서 △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 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인파 관리 대책, △행사 중에 발 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대비에 관해서 도 꼼꼼히 살폈다.

소방 분야에서는 △화기 취급 현장 결과들은 빠짐없이 확인·조치해 믿고 관리 상태, △소화기 배치 현황을 챙겼 으며 전력 분야에서는 △행사장 전력 공급의 안정성, △전력 설비 점검 및 관 밝혔다. 에 대한 안전 확보,  $\Delta$ 화재·사고 예방 리 체계,  $\Delta$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가스 분야에서는 △가스 배관 상태와 △경보기, 차단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 는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안전사고 없는 3 무 축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다"라며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나온 오는 자연특별시 무주, 안심하고 즐기 는 무주반딧불축제로 만들 것"이라고

/무주=최의호 기자

## 무주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 11일무주반딧불시장서개최 코미디언황기순씨사회진행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 제'가 오는 11일 오후 2시 무주반딧 불시장 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전라북도 상인연합 회가 주최하고 JTV전주방송이 주 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이 후원하는 가운데 군민 노래자랑, 진행된다.

코미디언 황기순의 사회로, 정미 애, 나미애, 진현, 최지예 등의 초대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제29회 무주 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가요제 예선은 행사 당일 오전 11 시에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무주시장상인회(063-324-0901)로 하면 된다. 최우수상 1명에 게는 30만 원, △우수상은 20만 원, △인기상 수상자에게는 10만 원의 상금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반딧불축제 와 함께하는 이번 가요제가 방문객 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의 순으로 고,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언제 찾아와도 따듯한 정이 넘치고 안전 한 먹거리, 즐길 거리, 살거리 넘치 는 무주반딧불시장이 되도록 하겠 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에서 청렴 골든벨 울리다

#### 조직내청렴문화확산기대

진안군은 4일 군청 강당에서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간부공무원 및 직 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렴 골든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과 관련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참여형 퀴즈 방식으로 기획됐다.

퀴즈대회는 청렴 관련 문제를 풀며 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각 라운드를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 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참가자들은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공직 생활 동안 닦아온 청렴 지식을 유감없이 뽐내었다.

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스마

트 청렴 골든벨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 군민을 위한 행 정 서비스의 기본인 청렴 가치의 제고 와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이바지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 교육을 주로 강의 형식으로만 받아왔는데, 이렇게 참여형 퀴즈로 직접 체험하니 훨씬 더 흥미롭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 느낌이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 우리 군 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청렴이 일상 속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환경단체, 다슬기 방류로 생태계 보전

임실군이 지난 3일 자연보호 임실군 했다. 협의회와 함께 섬진강 상류 섬진강생 를 방류했다.

전 사업의 일환으로 임실군과 자연보 교에서 다슬기 약 100만 마리를 방류 하고, 이후 하천 변 정화 활동을 실시

다슬기는 △수생태계 다양성 유지 활체육공원 인근 강진교에서 다슬기 △식물·해조류 개체 수 조절 △생태계 회복과 복원 등 하천 생태계에 다양한 이번 행사는 자연정화 및 생태계 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군은 호 임실군협의회 회원 약 50명 정도가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 함께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인근 강진 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2026년 예산편성 방침 설명회

진안군은 4일 산약초타운에서 2026 년도 예산편성 방침 및 운영기준 설명 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편성 절차에 들어갔다.

의 책임성을 높이고 운영지침의 중요 혜를 모아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특 성을 공유하기 위해 전 부서 예산담당 자와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예산편성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방침이다.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일정,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사전 행정절 차 이행 사항, 기타 유의 사항 등이 안 내됐다.

템 교육을 통해 사업 구조화, 중기재정 계획, 예산요구, 기금관리,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 등 예산업무 전반의 이해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를 높였다.

진안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 년도 본예산 편성에 본격 돌입하며, 한 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마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연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역량과 지 히 강조했다. 또한 계획적인 예산편성 으로 군정의 성장과 회복을 이끌어 갈

최방규 기획홍보실장은 "연간 가용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선 8기 공 약과 주요 현안사업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겠다"며 아울러 차세대 지방재정정보화시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고,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진안=전길빈 기자

2025년 9월 5일 금요일



#### 완주문화재단, 김치 담그기 막걸리 빚기 사업 성황리 마쳐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2025년 국 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지역 연계 지원 사업 '반갑다! 우리 무형유산, 김치 담그기·막걸리 빚기'사업을 최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3개월간 완 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가유산진흥원이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인 김치 담그기와 막걸리 빚기 문화의 지역 기 반 전승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총 5기수(누적500명)가 참여한 이번 교육은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유산을 체계적으로 학 습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다 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완주군 향토 음식 '신뱅이 김치'의 안명자 대표와 지역 특산물 막 걸리를 생산하는 기업 '눈부신 자연애' 전수미 이사가 강사로 참여해 현장 경험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식문 화의 깊이를 체험하는 기회였으며, 수강생들은 선조들의 품앗이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되새 기며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완주=김명곤기자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의 날 기념 캠페인 전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본)는 4일 전주서신중학교에서 제2회 '성교육의 날' 을 기념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성교육의 날'은 아동·청소년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의 중 요성과 가치에 대해 알리기 위해 지난해 시작 돼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이번 캠페인은 △성교육의 날? 제대로 알기! △성교육의 날은 언제일까요? 퀴즈 △'내가 듣 고 싶은 성교육?' TALK! TALK! △캠페인 참 여 인증사진 찍기 등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프 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심기본 센터장은 "한 청소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성교육의 날이 2회를 맞아,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성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 익산농업인,전북'농업인스마트경영혁신대회'서입상

익산시는 익산시정보화농업인 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이 '2025 농업인 스 상)을 받은 청년농업인 황종흔씨 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입상했다 는 금마에서 전통 장류 가공·체험 고 4일 밝혔다.

업기술원이 주최했으며, 농업인 번 수상으로 오는 10월 열리는 '농 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 존진흥청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 됐다. 블로그포스팅(청년·장년), 전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UCC(쇼츠),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 등 4개 분야에서 상)을 받은 김태희씨는 황등에서 지난달 경진과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 의 대표다. 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익산

농업인황종흔씨최우수상영예 농업인 황종흔·김태희씨가 블로 그포스팅 청년·장년 분야에서 수

청년 부문에서 최우수상(도지사 을 운영하는 4남매시골된장 운영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농 을 도우며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

> 장년 부문에서 장려상(연구회장 생강을 생산·가공하는 '자연도담'

> > /익산=최준호 기자



2025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익산 농업인 황종흔김태희씨가 블로그포스팅 청년 <사진=익산시> 장년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전북동부보훈지청, 삼례중앙초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특강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신경순)은 9월 4 일(목), 삼례중앙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일일특 강을 실시했다.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특강은 어린이 들이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특강은 △태극기와 애국가 배우기 △제복근무자에게 감사편지 쓰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체험 중심 의 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훈지청 직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 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수업을 펼쳤으며, 학생들의 높은 호응과 적극적인 참 여를 이끌어냈다.

이번 특강에 일일 강사로 참여한 전북동부 보훈지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오늘 체험을 통 해 보훈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나 라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키워나가길 바란 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완주FC, 영덕추계중등축구대회동반우승쾌거

#### 올해두번째'더블크라운'

완주군을 대표하는 축구클럽중 하나인 완주FC가 또 한 번 큰 성과 U14 65팀)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 를 거두었다.

일간 경북 영덕군에서 열린 2025 STAY 영덕 추계 중등 축구대회에 서 U14·U15 두 부문을 모두 제패, 고학년·저학년 전 부문 동반 우승이 라는 값진 결실을 안았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KFA) 는 성과로 평가된다. 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축구협회, 영

덕군축구협회, 영덕군체육회가 공 동 주관했다.

전국에서 총 129개 팀(U15 64팀, 쳤다. 완주FC는 치열한 승부 끝에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14 U15는 백호그룹, U14는 청룡그룹에 서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 특히 올해 초 금석배에서 이미 동 반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기록을 다시 세운 것 은 한국 중등 축구 역사상 전례 없

/완주=김명곤기자





## 부안군체육회,고향사랑기부금300만원기탁

회 임직원 일동이 고향사랑기부금 평가다.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랑기부를 실천한 바 있으며, 이번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의 기 기부를 통해 올해 두 번째 단체 참 부문화가 더 넓게 확산되길 바란 여를 하게 됐다.

지역 체육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서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고 타지자체와 교류할 예정이다. 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지역 간 상

부안군은 지난 1일, 부안군 체육 생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전동일 부안군 체육회장은 "체 부안군 체육회는 올해 초인 1월 육회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부 이사회에서도 200만 원의 고향사 에 동참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는 상호기부 방식으로

/부안=신상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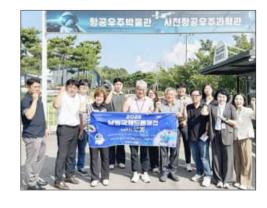
#### 김제시, '마음행복카페 페스티벌: 디오트' 개최

센터(센터장 서정수)가 4일 세계 로, 2023년 부터 운영해 온 마음행 자살예방의 날(매년9.10일)을 맞 복카페 1~3호점의 협조를 받아  $\Delta$ 아 죽산면에 위치한 트윈스테이블 마음건강 체크, △감정 향수카드 카페에서 시민 300명 이상이 방문 체험, △마음행복 음료 및 시그니 한 가운데 '마음행복카페 페스티 처 디저트 제공, △마음한컷 포토 벌: 디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존, △마음행복카페 3주년 특별전 고 밝혔다.

속에서 마음건강을 점검하고 치유 여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와 힐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중

김제시는 김제시정신건강복지 한 나를 위한 마법같은 주문' 주제 시 관람을 통해 지역주민, 청년, 청 이번 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일상 소년이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

/김제=온봉기 기자



#### 남원 도통동, 사천시 자매도시에 주요 시정 홍보·상생 발전 도모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사 천시 선구동을 방문하여 양 동 간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원시 도통동과 사천시 선구 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매결연 우호 협 력 강화의 일환으로, 양 지역 간 시정 홍보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마련됐다.

아울러, 교류 일정은 삼천포초등학교, 선구 동 행정복지센터, 선구동 주요 상가, 사천시 청, 항공우주박물관 등을 순회하며 진행되었 으며, 특히 각 방문지마다 남원시가 추진 중인 주요 시정과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단순한 예의 방문 이 아니라, 남원시의 가을 대표 축제와 핵심 정책을 널리 알리며 시정 홍보 위주의 실질적 인 교류 일정으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함께해요!

# 플라스틱 돌이기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하는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분해 하는데는 500년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 실천 해 주세요

11

#### 〈一事一言〉



## 이 대통령 첫 미·일 정상회담, 창의적 '실용 외교' 빛났다(2)

오태규

언론인

이런 때 두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비슷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위기를 타 개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일 본 방문에서 굳이 과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미래 협력 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 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한반도 전문 가 빅터 차는 〈적대적 제휴-한 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체제 〉라는 책에서, 한일 두 나라는 미 국으로부터 방기의 위험을 공유 할 때 서로 불안을 공유하고 협력 을 확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 다. 또 미국으로부터 방기의 불안 을 느끼는 정도가 비대칭적일 경 우에 한일의 역사 갈등이 재발한 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 면, 이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밑 으로 내려놓은 건 한일 두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거센 압박 을 받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 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 발 격동 의 세계'에 대응해 '국익 중시 실 용 외교'를 꾀하려는 몸부림은 일 본의 사례 외에서도 엿볼 수 있 습니다. 대미 수출 몫이 한국 이 상으로 큰 동남아의 강국 베트남 의 또 럼 공산당 총서기를 첫 국 빈 방문 대상자로 받은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미국 순방에 이어 바로 독자 외교의 전범국 인 도를 방문한 것, 이 대통령이 일 본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한 것, 우원 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 대신 9 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함께 묶어서 보면, 공허한 가치와 진영에 갇혀 허장성세 외교에 허 우적대던 윤석열 정권과 확연하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의 '국익 중심 실용 외 교'의 초반 성패는 트럼프 대통 령과 첫 정상회담에 달렸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통 령은 주도면밀한 준비로 트럼프 의 럭비공 공세를 피하고 좋은 결 과를 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 해,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 커(peace maker)를 하고 나는 페 이스 메이커(pace maker)를 하겠 다'라는 말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한일 협력의 중요 성을 거론할 때 이 대통령의 대응 에 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소인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 부 문제 등 아주 민감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과거의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 이 잘 지내기가 어려운 것인가" 라고 묻자, 이 대통령이 마치 기 다렸다는 듯이 "트럼프 대통령께 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 령을 뵙기 전에 일본과 미리 만나 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걱정할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대답했습니 다.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했 던 전략이 '신의 한 수'였음을 보 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3국 관계는 미・ 일이 주도하고 한국이 뒤를 따라 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구성원 으로 참가할 것을 약속한 2022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공동선언, 중 국과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삼 는 한미일 3국의 '유사 군사동맹' 을 맺은 2023년 8월 캠프데이비 드 회담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엔 한미일 협력의 방향이 윤 정권 때 와 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엔 이 대통령 주도로 한·일이 먼 저 손을 잡고 미국의 공세에 대응 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큰 나라 가 아니더라도 창의적인 외교로 전략적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쾌거입니다.

이런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 대 통령이 한일 간 핵심 문제인 과거 사를 너무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관련 시민 단체의 비판이 매섭습니다. 일본 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연대는 "실용 외교 속에 역사 정 의가 사라졌다"라고 비판했고, 일 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제삼자 변제는 조약도 아니고 한쪽의 일 방적 발표일 뿐인데 '국가 간 약 속'이라며 그 격을 한껏 높여 주 기까지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 이기에 역사 정의 실현에 앞장서 리라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당연합니다. 저는 이 대통 령이 적어도 '위안부와 강제노동 문제는 역대 한일 정부가 합의했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완전 히 해결된 건 아니다'라는 수준의

발언은 명시적으로 했어야 했다 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조 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역사 문 제도)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 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으니 지켜볼 일입니다.

'삼국지연의'로 중국제국의 본 령을 해석한 김월회 서울대 중문 과 교수는 "자원도 인재도 부족 한 촉나라가 막강한 부와 인재를 거느린 위나라와 오나라라는 강 국의 틈새에서 제국을 건설한 것 은 정확한 형세 판단이 있었기 때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공도 정확한 형세 판단 과 결단력 있는 행동에 달려 있다 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은 첫 장애물 을 잘 넘었다고 안도해선 안 됩니 다. 앞으로 더 큰 산과 강들이 놓 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 니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 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북 정치권과 도정 원팀 협력, 성과로 보여줘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인 사들이 정부 주요 부처와 대통령실에 다 수 중용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 서 머리를 맞대고 도정 주요 현안과 미 래 발전 전략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하 다. 예산과 정책, 입법 과제까지 망라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는 일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 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 략산업기지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 치,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을 공유 했다.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소·미반영된 사업의 증액과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의 테 스트베드로 키우겠다는 전략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다. 바이오. 방산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언제든 실험·투자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하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새만금 은 더 이상 미완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 민국 미래산업의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 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또한 단순한 지역 이익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치안인력 양성 차원에서 절실하다. 영호 남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소 멸 위기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클 것이다. 여기에 농촌진흥청 일부 조 직의 수도권 이전 논란을 계기로, 식품

자원개발부의 전북 완전 이전과 함께 혁 신도시 특별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 이는 전북이 더 이상 '되돌림 없는 수도 권 종속'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입법 과제도 중요하다. 공공의대 설치 는 지방의 심각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가정법원 설치 는 도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여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전 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 고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가 보여준 가장 큰 성과는 '원팀 전북'의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도 와 국회의원이 따로 놀면 성과는 반쪽에 그친다. 그러나 예산 확보와 입법 추진,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면 도민이 체감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연속적인 협력 구조를 통해 실질 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북은 오랜 기간 국가 발전의 변방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정 부 요직에 자리한 전북출신 인사들과 도 정, 정치권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또 다시 '기대만 컸던 허망한 시간'으로 남 을 것이다.

이제 전북 정치권과 도정이 보여줘야 할 것은 성과다.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역 산업과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원팀 정신의 증명 이다. 전북이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

## - | 독자광장|

## 개학 철,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스마트 폰 사용 이 잦아 지면서 핸드폰

동안 자

연스레

을 이용 한 사이버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 에서 유행 아닌 유행이 되었다.

'가입만 해도 게임머니 충전' '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 최근들 어 모두가 한번쯤 인터넷 웹서핑 중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런 문구 도박에서 끝나지 않고 도박자금 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법도박 사이트 광고가 늘어나고 기를 훔쳐 중고시장에 판매하는 있다.

단순 호기심에 재미로 시작하 지만, 점점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업이나 가정생활까지 가정에서의 관심이다.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도박에 빠지는 주요 원 인은 호기심(42%) 친구소개 (33%)가 대부분이다.

특별한 인증절차 없이 스마트 폰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수 있는 환경이 이러 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은 아직 스스로 본인 을 조절하는 힘이 약하다. 작은 호기심이 큰문제로 번지기 쉽고 도박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악용하 거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박 청소년들은 단순 을 마련하기 위해 또래 친구들의 최근 sns의 증가로 무분별한 불 돈을 뺏거나 친구의 고가 전자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아이들의 스마트폰 다.



사용을 살피고, 도박의 위험성을 수시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사용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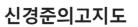
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더 강화해 다. 야 한다.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위험징후가 포착될 경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이버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 강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서도 도박의 위 지금부터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

> 도박 문제로 상담을 원할 경우 한국도박문제 예방 치유원(1336),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1388)에

/정읍경찰서 경위 김화금

## 오늘의시 가을 / 강은교 기쁨을 따라갔네 작은 오두막이었네 슬픔과 둘이 살고 있었네 슬픔이 집을 비울 때는 기쁨이 집을 지킨다고 하였네 어느 하루 찬 바람 불던 날 살짝 가보았네 작은 마당에는 붉은 감 매달린 나무 한 그루 서성서성 눈물을 줍고 있었고 뒤에 있던 산, 날개를 펴고 있었네 산이 말했네 어서 가보게, 그대의 집으로..... 시인 약력 : 1945년 함남 홍원 출생. 서<mark>울서</mark> 성장하며 경기여고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 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대 교수를 역임했다. 1968년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순례자의 잠'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1975년 제2회 '한국문학상', 1992년 제 37회 '현대문학상', 2006년 제18회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빈자일기' '벽 속 의 편지' 등이 있고 시선집으로 '풀잎' '붉은 강' '허무 수첩' 등 다수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천문지리기구, 지리

- 시대 - 조선시대

- 지정일 - 1979년 12월 27일

- 소재지 - 순창군 남산길 32-3

(순창읍, 귀래정신말주선생후손세거지)



송천지사-010-5242-3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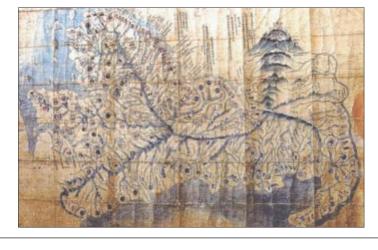
2011년 10월01일 회刑/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전주지사 010-9845-4113 부안지국 010-7247-3947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중앙지사 010-9678-4271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인후지사 010-8640-6855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팔복지사 010-3015-4791

>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 화 재 열 전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에 여름철 대표 꽃인 수국이 만개하면서 막바지 여름철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메타세콰이어길을 따라 심어진 라임라이트 수국이 은은 한 연둣빛에서 순백으로 바뀌어 가는 독특한 매력을 뽐내 며, 고즈넉한 숲길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다.

장엄하게 뻗은 메타세콰이어길과 풍성하게 피어난 하얀 수국이 어우러져, 마치 유럽의 정원에 온 듯한 낭만적인 풍 경을 자아낸다.

또한, 해바라기, 안젤로니아, 메리골드 등 여름꽃 식재도 완료하여, 수국뿐 아니라 다양한 여름꽃을 만끽할 수 있다. 여기에 군은 올해 붕어섬 생태공원 보완 사업을 본격 추 진하여,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과 나무의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날씨에도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이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쿨링포그를 설치했다.

12개소의 쿨링포그는 여름철 막바지 더위를 식혀주고 시 원한 물안개를 맞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또한, 기존의 연못데크 주변에 부채붓꽃 1,170본과 연꽃, 앵초, 삼색버드나무 등 다양한 수변식물을 식재할 예정이

신나무숲에는 수국 140주를, 작약원에는 산수유 100주와 진달래 1,200주, 공작단풍을 식재할 계획으로, 붕어섬 생태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즐거움은 더욱 더해질 것으로 예 사되다.

붕어섬 생태공원은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절꽃 식재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지난 8월 19일 재개장했다.

재개장 이후,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꾸준히 관광객이 늘어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의 인기를 크게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농 특산물 판매장과 카페를 개점한 것도 이용객 증가에 한몫 해다

심 민 군수는 "평소 경관 조성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올해 보완 사업 추진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인 명소로 거 듭날 것"이라며 "방문객들이 일상속에서 특별한 휴식과 감 동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